

# 言語行爲와 意味

## (Speech Acts and Meaning)

李 澤 鎬

### I. 緒 言

分析哲學은 두 방향에서 言語에로의 접근을 시도했다. 즉 實證主義運動과 言語使用法運動이다.<sup>1)</sup>

前者는 Frege, Russell, Wittgenstein 등과 論理實證主義者들에 의해 주도된 運動이다. 이들은 言語의 普遍的 構造를 客觀的 世界와의 對應關係 속에서 解明하려 했으며, 言語의 주된 기능을 事實的 情報를 나타내고 교환하는 敘述로 보았다.<sup>2)</sup> 이를 수행하는 形式은 陳述(statement)이고 이 陳述은 眞·僞의 眞理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關心은 言語의 「認識的 部分」<sup>3)</sup>이었다.

그 다음의 運動은 Moore, 후기 Wittgenstein 등에 의해 전개되고, G. Ryle, J. L. Austin, 그리고 Strawson과 같은 소위 Oxford 학파의 人物들에 의해 이어진다. 이들은 言語를 보다 넓은 배경에서 把握하는 입장인 바, 言語의 陳述의 機能과 이를 수행하고 있는 形式으로서의 陳述을 全 言語現象의 一部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言語가 지닌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言語使用者인 人間의 삶의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解明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眞·僞의 眞理值를 갖지 않는 言語들이 전부 無意味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ustin은 종래의 敘述文 중심의 낡은 傾向의 오류를 「敘述的 誤謬(descriptive fallacy)」<sup>4)</sup>라고 했다.

言語行爲(speech act)가 말해지는 哲學史的 脈絡은 日常言語學派의 言語使用法 運動이다. 言語行爲論은 단어, 문장 혹은 어떤 表現의 使用을 그것을 發言하는 行爲 속에서 說明한다. 이 論文은 言語行爲는 무엇이며 意味가 이 理論에서 어떻게 說明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Austin의 言語行爲論을 概觀하고 意味를 說明하는 方式들을 분석, 검토하겠다.

1) Austin (1961), "Performative Utterance", *Philosophical Papers* (New York: Oxford Univ. Press), p. 234.

2) 이명현 (1977), "言語와 哲學"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 (서울: 文學과 知性社), pp. 303-317.

3) J. Searle (1971)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Oxford Univ. Press), p. 6.

4) Austin, *Philosophical Papers*, p. 234.

## II. Austin의 言語行爲論

### II.1 特殊理論

Austin의 言語行爲論은 두 단계의 전개과정으로 나타난다. 즉, 遂行的 發言과 陳述的 發言을 구분하는 단계로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行하는 것인 것이라는 理論의 단계로 전개되었다. 前者를 特殊理論(special theory), 後者를 一般理論(general theory)이라고 한다.<sup>5)</sup> 特殊理論의 요점은 遂行的 發言과 陳述的 發言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遂行的 發言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말하는 것이 遂行的 發言이 되는지 알아본다.

#### II.1a. 遂行的 發言의 性格

Austin은 論理實證主義者들의 言語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로써 言語現象을 모두 說明할 수 없다고 보았다. 어떤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때문에 眞·僞로 말할 수는 없지만, 듣는 사람에게 어떤 方式으로든지 영향을 주거나 발언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발언들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발언들은 陳述처럼 보이며 실제로 문법적으로 陳述로 분류되면서도 眞僞가 아니고 眞도 僞도 아닌 발언들이다. Austin은 이들을 遂行的 發言(performative utterance)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定義했다.<sup>6)</sup>

- A. 어떤 사실을 ‘記述’ 하거나 ‘報告’ 하지 않으므로 眞·僞의 眞理值를 갖지 않으며,
- B. 이 문장을 발언하는 것이 단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行爲를 하거나 적어도 그 행위의 일부를 개시하는 발언들.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의 形式을 갖추어야 文法的으로 타당한 遂行的 發言이 되며 이를 「明示的 遂行文(explicit performative)」<sup>7)</sup>이라고 한다.

- C. 一人稱, 單數, 現在, 直說法, 能動態의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들과,
- D. 二, 三人稱의 수동형 문장으로서 「이로써(hereby)」의 수식을 받는 形式.<sup>8)</sup>

5)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J. O. Urmson (ed) (이하 H.D.W로 표기함), p.147. H.D.W의 第七講 이전과 이후가 각각 특수이론과 일반이론의 내용이 되겠다. 특수이론에 해당하는 Austin의 論文은 “Performative Utterance”와 “Performatif-Constatif”이다.

6) 上掲書, p.5의 예를 들면,

(E.a) 結婚式場에서 신랑(혹은 신부)이 “네”라고 말한다.

(E.b) 배의 命名式에서 船首에 술병을 던지며, “이 배를 ‘권 엘리자베스’라고 칭한다”

(E.c) 遺言을 하면서, “이 시계를 나의 동생에게 유증한다.”

(E.d) 내기를 하면서, “내일 비가오면 6펜스를 주겠다.”

7) [I x that p]의 形式과 2,3인칭의 경우는 「you (or he) are (or is) hereby x-ed to do so and so」의 形式을 취한다.

8) Austin *Philosophical Papers*, pp.241-242. 각주 6)의 기호 A,B는 Austin의 표현이고 이 논문의 C,D는 편의상 필자가 붙인 것이다.

C, D의 조건을 위배하면 그 形式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 어떤 行爲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行爲에 관한 報告가 된다. 그런데 이상의 4조건에 맞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行爲가 성립되지 않는다.

II. 1b. 遂行的 發言의 適切條件

어떤 조건에 맞지 않게 발언된 遂行的 發言을 僞(false)라고 말하지 않고 不適切한(unhappy) 발언이라고 한다. Austin의 不適切의 原理(Doctrine of Infelicities)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sup>9)</sup>

(A.1) 어떤 慣行的 節次(conventional procedure)가 存在해야 하고 認定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節次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말해져야 한다.

(A.2) A.1이 가능한 경우, A1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나 그 상황속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합해야 한다.

(B.1) A.2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A.1의 절차가 正確하게(correctly) 집행되어야 하고,

(B.2) 完全하게(completely) 집행되어야 한다.

(Γ.1) A.2에 관계된 사람들은 A.1의 절차를 發動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할 感情, 생각 그리고 意圖를 갖고 있어야 하며,

(Γ.2)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Γ.1대로 行爲해야 한다.

A.1, A.2, B.1, B.2의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行爲가 성립되지 않기에 문에 나타나는 不適切함(unhappiness)을 不發(misfire)이라고 하고, Γ.1, Γ.2의 조건을 위배하면 行爲는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不適切한 경우로 이를 濫用(abuse)이라고 한다.

II. 1c. 陳述의 發言의 遂行的 性格

지금까지 遂行적 發言을 陳述의 發言과 구별되는 듯이 말해 왔다. 즉, 陳述의 發言은 眞·僞의 次元이고 遂行的 發言은 適切·不適切의 次元이었다. 그런데 Austin은 「陳述들을 연구하는 과정」<sup>10)</sup>에서 惹起된 어려움은 오직 不適切의 誤謬(troubles of infelicity)라고 했다. 陳述의 發言들도 그것이 言表되는 상황에서 볼 때, 陳述들간에 야기되는 「論理的 關

9) Austin, H.D.W. pp.14-38. 예들 들면 다음과 같다. (조건을 위배한 경우)

(A.1) 말을 하므로써 그것이 결투신청하는 行爲로 간주되는 節次가 없는 경우에, “나는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한다”고 말하거나 이혼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Arab에서 치밀 부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3번 말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에서 “집을 나가라!”고 3번 말하는 경우.

(A.2)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열어라”고 명령한다든지, 一鎗兵이 將軍에게 “공격하라!”고 말하는 경우.

(B.1), (B.2)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결혼식장에서 신랑대신 다른사람이 “네(Yes, I do)”라고 말하는 경우.

(Γ.1) 갈 意圖도 없으면서, “나는 거기에 가겠다”고 말하는 경우.

(Γ.2)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적개심을 나타내거나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

10) Austin, *Philosophical Papers*, p. 248. 여기서 Austin이 말하는 「陳述들을 연구하는 과정」은 Russell이 “On Denoting”에서 「The king of France is bald」를 말하면서 제기한 「definite description」의 문제에 관한 Strawson, Donnellan 등의 論議를 지적하는 것 같다.

係」<sup>11)</sup>를 고려해 보면 遂行的 發言처럼 不適切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眞·僞의 次元에서 보면 두 發言의 구별이 무너지고 만다. 그러면 陳述的 發言이 반드시 矛盾은 아니지만 言語用法에 위배되어 不適切하게 되는 論理的 關係(logical relation)를 考察해 본다. Austin은 그러한 論理的 關係로서 含蓄, 隨伴, 前提 셋을 들고 있다.<sup>12)</sup>

### (1) 前提(presupposition)

(A) 「John의 아들은 대머리이다」는 발언은 (B) 「John은 아들을 갖고 있다」는 진술을 前提한다. 따라서 (C) 「John의 아들은 대머리이다. 그러나(혹은 그리고) John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John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 (A)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땅의 販賣契約에 관한 遂行的 發言을 하는 것처럼 不適切한 발언이다. John의 아들을 F로, 대머리를 G로 표시하여 (A) 문장을 다음 과같이 記號論理로 표현하면  $(\forall x)\{F(x) \cdot G(x)\}$ 가 된다. 그리고 (C)의 문장은  $(\forall x)\{F(x) \cdot G(x)\} \cdot \sim F(x)$ 인데 모순 명제임이 들어난다. 이것은 Austin의 適切條件 A.1, A.2를 위배한 경우와 같다.

### (2) 含蓄(implication)

(D) 「고양이는 매트 위에 있다」는 발언은 (E) 「나는 D라고 믿는다」는 陳述을 含蓄한다. 그런데 (F) 「D라고 말하고  $\sim E$ 라고 말하면 마치 「나는 거기에 가겠다고 約束한다」고 말하고 「나는 갈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不適切하다. (D) 문장과 (E) 문장의 論理的 關係를 記號로 表示하면,  $D \supset E$ 이고 定義에 따라  $\sim(D \cdot \sim E)$ 이다. 그러므로  $D \cdot \sim E$ 는  $\sim(D \supset E)$ 가 되어 (F)는 論理的으로도 矛盾임이 드러난다. (F)의 경우는  $\Gamma.1$ 을 위배한 遂行的 發言의 경우와 같다.

### (3) 隨伴(entailment)

「모든 손님은 프랑스 사람이다(A판단)」는 발언은 「어떤 손님은 프랑스 사람이다(I판단)」는 陳述이 眞이 됨이 論理的으로 隨伴 된다. 그런데 「모든 손님은 프랑스 사람이다. 그러나(혹은 그리고) 어떤 손님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마치 손님을 맞으며 「환영합니다」를 말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어  $\Gamma.2$ 의 규칙을 위배한 경우의 不適切과 같은 경우이다.

이상의 論議로 미루어 Austin은 사실상 遂行的 發言과 陳述的 發言의 差異가 별로 없으므로 두 발언의 구별이 무너지는다고 보았다.<sup>13)</sup> 따라서 모든 발언을 明示的 遂行文의 形式인

11) Holdcroft, D. "Performative and Statement", *Mind* (1974), p. 4.

12) Austin, H.D.W. pp. 47-52.

Austin, *Philosophical Papers*, pp. 247-249.

Austin, "Performative-Constativ",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Searle), pp. 17-20.

13) 上揭書, p. 52 (H.D.W)

p. 251 (*Philosophical Papers*)

p. 20 ("Performative-Constativ")

「I x that p」의 形式으로 환언할 수 있다면, x의 範疇속에 「記述한다」, 「報告한다」등의 동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形式으로는 時制(tense)와 人稱의 제한을 받는 특정한 言語現象만을 說明할 수밖에 없다. 이 形式을 벗어난 발언은 어떤 行爲를 遂行하는 것이 아니라 行爲에 관한 보고가 된다.

## II.2. Austin의 一般理論

Austin은 適切·不適切의 次元에서는 遂行的 發言과 陳述의 發言의 구별이 必要 없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발언을 明示的 遂行文의 形式으로 환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sup>14)</sup> 이에 Austin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접근을 시도했다. 즉, 그는 모든 발언의 行爲的 性格에 주목하여 무엇을 말하는 그 自體가 行爲인 경우, 무엇을 말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行爲, 그리고 무엇을 말함이 結果하는 行爲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形態로 나누어 검토한다.<sup>15)</sup>

- (1) 말하는 行爲(locutionary act)
- (2) 말하면서 하는 行爲(illocutionary act)
- (3) 말을 통한 行爲(perlocutionary act)

여기서 意味와 관계되는 것은 (1), (2)이므로 (3)은 論外로 하겠다.

### II.2a. 말하는 行爲(locutionary act)의 構造

「말하는 行爲」의 특징은 話者의 턱과 혀를 움직여 소리를 내는 物理的 行爲로서 다음과 같은 세계의 補助的 行爲에 의해 성립된다.

- (A.a) 어떤 소리를 발언하는 行爲; 이런 行爲를「phonetic act」, 이 때의 발언을「phone」이라고 한다.
- (A.b) 문법체계에 맞추어 어떤 어휘들을 발언하는 行爲; 이런 行爲는「phatic act」, 이 때의 발언은「pheme」이다.
- (A.c) 「pheme」을「뜻과 指示(sense and reference)」를 갖는 것으로 使用하는 行爲; 이 行爲는「rhetic act」, 이 때의 발언은「rheme」이다.<sup>16)</sup>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phatic act」는 「phonetic act」를 통해서, 「rhetic act」는 「phatic act」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 逆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세계의 補助的 行爲는 「말하는 行爲」를 成立시키기 위한 概念상의 구별이다. 또한 발언 「pheme」은 意味가 없으나 言語(langue)의 한 單位이고, 「rheme」은 말(speech)의 單位인데 애매하고 공허한 것이

14) Austin, H.D.W. pp. 90-91.

15) locutionary act=act of saying something

illocutionary act=act in locutionary act=act in act of saying something=non-linguistic act in linguistic act.

perlocutionary act=through/by locution.

16) 上掲書, p. 92, pp. 95-96.

그의 길함이라고 Austin은 본다.<sup>17)</sup>

### Ⅱ.2b. 말하면서 하는 行爲(illocutionary act)의 構造

「말하면서 하는 行爲」는 「 $x$ 를 말하면서 나는  $y$ 를 하고 있었다」고 公式化할 수 있다.<sup>18)</sup> 여기서 行爲  $x$ 는 「말하는 行爲」이고, 行爲  $y$ 는 「말을 하면서 하는 行爲」이다. Austin은 行爲  $y$ 에서  $y$ 의 範疇는 質問하고 對答함, 情報를 제공함, 確信시킴, 警告함, 判決내림, 確認함, 記述함, 謝過함, 指示함 등 무수히 많아서 이러한 遂行動詞의 目錄表를 만든다면  $10^3$  정도의 동사가 있다고 한다.<sup>19)</sup> 그는 이런 동사들을 5種으로 分類했으나 이 分類方式의 不適合性을 Searle이 지적한다(Ⅲ.1에서). 여기서  $10^3$ 이라는 것은 한  $x$ 에 대한  $y$ 의 종류를 表示하는 것이 아니라  $x$ 가 무엇이든지 말하면서 이루어지는 行爲의 종류를 나타내는 數值인 것이다.

$y$ 를 결정하는 方式, 즉 「locution」을 받아들이는 方式 혹은 문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方式을 Austin은 「말하면서의 效果(illocutionary force)」라고 부른다. 이 效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x$ 가 어떤  $y$ 의 종류와 관련되는 지를 分明하게 하는 발언의 機能的(functional)이고 作用的(operational)인 측면으로서 文法에서는 話法(mood), 抑揚, 語勢등에 해당하겠다. 이러한 기능을 Alston은 「말하는 行爲의 素質(illocutionary act-potential)」<sup>20)</sup>이라 했고, Searle은 발언의 「기능표시 요소(function indicating device)」<sup>21)</sup>라고 하여 모든 발언을  $F(P)$ 로 表記한다. 이에 대한 說明은 Ⅲ.2에서 하겠다. Kutschera 또한 이 效果를 「遂行的 作用素(performative operator)」<sup>22)</sup>라고 하고 발언을  $P(x,A)$ 로 表記한다. 여기서  $A$ 는 발언이 갖고 있는 敘述의 部分, 즉 記述的 文章의 形態이며,  $x$ 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포함하여 발언에서 지지되고 있는 사람들의 集合이다. Stampe는 이 效果를 「말하면서의 效果를 나타내는 요소(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라 하고 ifid로 表記한다.<sup>23)</sup>

### Ⅱ.2c. 理解의 追求(the securing of uptake)

Austin은 Frege와 Frege의 전통을 따르는 意味論者들이 意味를 「뜻과 指示」로 나누어 본 것 처럼, 문장의 意味와 문장의 效果(force)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뜻과 指示」와 同值인 意味論이 수정되어져서 「말하는 行爲」와 「말하면서의 行爲」의 구분에 의해 再構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up>24)</sup> Austin의 意味論은 「뜻과 指示와 效果」를 말하는 理論이 되겠다. 그는 이 이상 意味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그가 「말하면서의 行爲

17) 上揭書, p. 98.

18) 上揭書, p. 121.

19) 上揭書, p. 149. J. O. Urmson의 설명에 의하면, Austin이 1000이란 숫자 대신  $10^3$ 을 사용한 것은  $10^3$ 이란 表現이 더 科學적이고 감명적이며, 1000~9999의 숫자를 커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 Alston, *Philosophy of Language*, p. 36.

21) Searle, *The Philosophy of Language*, p. 44.

22) Kutschera, *Philosophy of Language*, p. 134.

23) Stampe, "Meaning and Truth in the Theory of Speech Act", *Syntax and Semantics*, p. 4

24) Austin, H.D.W. p. 148.

(illocutionary act)의 遂行을 위한 條件으로서 제시한 「理解의 追求」<sup>25)</sup>에서 意味의 理解를 말하고 있다. 즉 理解의 追求라는 것은 「말하면서의 行爲」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말(locution)의 言語的 意味와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Strawson이 意味理解의 段階로서, 言語的 意味(linguistic meaning), 言語指示的 意味(linguistic-referential meaning), 그리고 完全한 意味(complete meaning)를 理解하는 단계를 말한 것과 비슷하다.<sup>26)</sup> 다음의 例文을 통해 살펴보자.

(A) 「John은 지금부터 2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다」

(B) 「지금 가지 마시오」

(A)의 경우, 어떤 言語의 構文法과 意味論의 規則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그대로의 사전적 意味를 알았다면 「言語的 意味」를 理解한 것이고, John이라는 고유명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며 지금 여기라는 時間과 場所가 무엇인지 分明히 알았다면 「言語指示的 意味」를 理解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B)의 경우에 「言語指示的 意味」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命令, 請願, 忠告중에 어떤 方式으로 使用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Austin의 理解의 追求는 Strawson의 完全한 意味의 理解의 단계로서 意味와 效果까지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요청된다.

### III. Austin의 分析에 대한 是非<sup>27)</sup>

言語行爲論의 意味問題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면서의 效果(illocutionary force)」와 意味의 관계가 糾明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言語를 理解하고 意味를 완전히 알았다는 것은 말(locution)이 갖고 있는 效果가 무엇인지 分明히 아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하는 行爲」와 「말하면서의 行爲」의 구분을 明確히 하기 위해, Austin의 分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John Searle의 論議와 타당하다고 하는 Forguson의 論議를 고찰해 본다.

#### III.1. Searle의 反論에 內在한 言語理論

John Searle은 Austin이 「말하는 行爲」와 「말하면서의 行爲」를 구분하는 理論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완전한 一般論(general theory)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sup>28)</sup> 즉, Austin의 구분으로서는 陳述의 本質과 陳述에 眞·僞가 관련되는 方式, 문장의 意味가 그 문장을 발언할 때 話者가 意味하는 것과의 관계등을 포함한 哲學的 問題들을 說明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

25) 上揭書, p. 116.

26) Strawson, "Austin and 'Locutionary Meaning'" (ed Berlin), pp. 46-48.

27) John Searle은 Austin의 分析이 타당하지 않다고 "Austin on Locutionary Acts"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Searle의 論議는 Austin을 오해한 所以라고 Forguson은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에서 주장하고 있다.

28) Searle (1968), "Austin on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 *Essays on J. L. Austin*, (ed Berlin), p. 141.

는다는 것이다. 또한 一般理論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문장을 진지하게 발언하면 문장의 意味가 「force」의 一部를 결정한다고 Searle은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는 말을 진지하게 문자 그대로 발언했다면, 이는 곧 「나는 이로써(hereby)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말이 되므로 意味가 효과(force)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earle은 「말을 하는 行爲」와 「말하면서의 行爲」가 별도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言語行爲에 대한 서로 다른 名稱일 뿐이라고 했다.<sup>29)</sup> 즉, 그들의 概念의 內包는 다르지만 그들의 外延은 중복되어 「말하면서의 行爲」의 集合 속에 「말하는 行爲」의 集合이 포함 된다.

그런데 Austin의 分析에 대한 Searle의 反論에 內在한 言語理論으로 다음 세가지지를 들 수 있다.

- (1) 表現可能性的의 原理(principles of expressibility)<sup>30)</sup>
- (2) 한 문장의 意味는 그를 구성하는 의미있는 要素들에 의해 결정된다.
- (3) 言語의 말하면서의 効果는 다소 特殊한 것이다.

먼저 表現可能性的의 原理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意味할 수 있는 것은 말해질 수 있다」<sup>31)</sup>는 원리인데, Austin은 이 원리를 무시하므로써 意味와 「force」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효과 *F*를 갖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문장의 意味가 그 효과 *F*를 정확하게 表現하는 그런 문장을 表現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2)</sup> 따라서 Searle은 문장의 意味를 연구하는 일과 그 문장을 발언하므로써 遂行되는 「말하면서의 行爲」를 연구하는 일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하는 같은 作業이라고 했다.

둘째로, 문장의 意味있는 構成要素라는 것은 단어 뿐만 아니라, 語順, 統辭論的의 深層構造(deep syntactic structure), 抑揚 그리고 語勢(stress)등이 있다. Austin이 「force」가 意味의 一部라는 것을 無視한 것은, 「뜻과 지시」를 갖는 「rhetic act」를 定義하면서 그는 이 Frege의 용어를 기껏해야 단어나 구(phrase)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Searle은 보았다.

마지막으로 발언의 「말하면서의 효과(illocutionary force)」가 不確定的이라는 것은 문장 발언의 기능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비가 온다」는 발언의 言語的의 意味는 確定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발언이 갖는 효과 *F*는 다양하다. 즉, 그 말은 상황에 따라, (*F*<sub>1</sub>)기상에 언급하는 사실의 보고, (*F*<sub>2</sub>) 우산을 갖고 나가라는 勸告, (*F*<sub>3</sub>)나가지 말라는 警告, (*F*<sub>4</sub>) 문을 닫으라는 命命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Austin은 言語行爲를 수행하는 동사들은 5種으로 分類하고 그 숫자를 10<sup>3</sup>정도라고 表現했다<sup>33)</sup>. 그러나

29) 上揭書, p.143.

30) Searle (1968), *Speech Acts*, p.20.

31) Whatever meant can be said.

(*S*) (*X*) [*S* means *X* → *P*(*SE*)], 여기서 *E*는 *X*의 正確한 表現, *P*는 可能性이다.

32) Searle, "Austin on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 (ed Berlin) p.153.

33) Austin, H.D.W pp.149-162. 그는 여기서 5가지 유형의 遂行動詞의 명칭을 ① Verdictives ② Exercitives ③ Commissives ④ Behavitives ⑤ Expositives라고 칭했다.



Searle은 그가 分類한 5種의 동사들이 완전히 중복되지 않고 배타적인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의 目錄表가 모든 동사를 다 열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sup>34)</sup>

### III.2. Searle이 分類한 言語行爲

Searle은 Austin이 遂行的 發言과 陳述的 發言을 언급하면서,<sup>35)</sup> 「locutionary」한 측면에 관심을 集中한 것이 陳述的 發言이고 事實과 對應하는 차원에서 「말하면서의 效果(illocutionary force)」에 集中한 것이 遂行的 發言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Searle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見解가 Austin의 마음속으로 「말하면서의 行爲」의 內容, 즉 哲學者들이 命題라고 稱하는 것과 效果(force), 즉 그 行爲의 非言表的 形態와의 구별을 마음먹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받았다.』<sup>36)</sup>

이 암시로부터 Searle은 言語行爲를 命題的 行爲(propositional act)와 말을 하면서의 行爲(illocutionary act)로 분류했다. 命題的 行爲는 言語行爲의 共通된 內容(common content of speech acts)를 表現하는 行爲이고, 이 行爲를 成立시키는 補助的 行爲로는 Austin의 「phonetic act」와 「phatic act」이다. 따라서 Searle은 모든 발언을 「말하면서의 效果를 表示하는 要素」와 命題的 內容을 表示하는 要素로 나누어 보고 記號로 다음과 같이 表記하였다.

$$U \longrightarrow F(P)^{37)}$$

이상의 論議에서 Searle이 分類한 言語行爲는 다음과 같다.

- (1) phonetic act
- (2) phatic act
- (3) 命題的 行爲(propositional act) → (1), (2)를 통해 P를 表現하는 行爲
- (4) 말하면서의 行爲(illocutionary act) → F(P)를 表現하는 行爲

### III.3. Searle에 대한 Forguson의 反論

Forguson은 Searle이 Austin을 근본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Austin의 「말하는 行爲」와

34) Searle, 上揭書, p. 153.

35) Austin, H.D.W. pp. 144-45.

36) Searle, 上揭書, p. 155.

37) Searle, 上揭書, p. 156 Searle의 論文 “What is Speech Acts?”의 예들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John은 방을 떠날 것인가?
- (2) John은 방을 떠날 것이다.
- (3) John, 방을 떠나도록 하라.
- (4) John이 방을 떠났으면 좋겠다.
- (5) 만일 John이 방을 떠난다면, 나도 떠나겠다.

P: John이 방을 떠나는 것

F<sub>1</sub>: 물음의 수행,

F<sub>2</sub>: 주장

F<sub>3</sub>: 명령의 수행.

F<sub>4</sub>: 請願

F<sub>5</sub>: 의도의 가정적 表現

「말하면서의 行爲」를 구분한 이론이 一般論이 될 수 없다고 했다.<sup>38)</sup> 먼저 Austin理論의 要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erguson의 해석)

(1) Austin에 있어서 「말하는 行爲」를 구성하는 補助的 行爲들은 모든 言語現象으로부터의 抽象이다. 즉, 「말하는 行爲」는 意味있는 「locution」을 동시에 말하는 行爲이지만 개념상 구분하여 3개의 行爲들을 구분했다. 그중에서 「phonetic act」와 「phatic act」를 구분하려면 먼저 意圖와 規約의 問題를 검토해야 한다고 Ferguson은 생각한다.<sup>39)</sup> 말하는 行爲와 관련이 되는 規約와 意圖의 問題는 다음과 같다.

(a) L-規約(L-convention): 어휘나 문법을 구성하는 규칙,

(b) L-意圖(L intention): L-規約에 합당하도록 말하므로써 어떤 문장으로 간주 될 것을 意圖함.

(c) S-R 意圖(S-R intention): 「pheme」을 어떤 뜻과 指示를 갖도록 使用하려는 意圖

이상의 說明에서 Ferguson은 「phonetic act」가 「phatic act」가 되기 위한 必要充分條件은 話者は L-意圖를 갖고 있어야 하며, L-意圖가 최소한 L-規約에 符合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phatic act」를 통해 성립된 발언 「pheme」은 「rhetic act」의 素質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때 「pheme」은 뜻을 갖고 있으나 아직 어떤 對象에 적용해야 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Pheme」은 「決定할 수 있는 意味(determinable meaning)」를 갖고 있으나 「rheme」은 「決定된 意味(determinate meaning)」를 갖고 있다. 따라서 「phatic act」가 「rhetic act」가 되기 위한 必要充分條件은 話者が S-R 意圖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Ferguson은 말한다.<sup>40)</sup>

(2) Austin이 「말하면서의 行爲」없는 「말하는 行爲」는 가능해도 그 逆은 成立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말하면서의 行爲」를 遂行하기 위해서 話者は, i) 말하는 行爲(locutionary act)를 수행해야 하고, ii) 어떤 상황에서 효과 F를 갖도록 의도해야 하고, iii) 「locutionary meaning」과 「illocutionary force」를 함께 理解해야 하고, iv) L-規約 뿐만 아니라 「慣習을 規定하는 (practice-defining)」規約 까지도 따라야 한다.<sup>41)</sup>

#### III.4. Ferguson이 본 Searle의 誤謬

(1) Austin의 理論이 완전한 一般理論이 될 수 없다는 Searle의 反論에 대하여……

Searle은 「말하면서의 行爲」의 集合 속에 「말하는 行爲」가 포함되기 때문에, 「말하면서의 효과」에서 말의 意味를 抽象하려는 Austin의 시도는 마치 「獨身(bachelor)」에서 「結婚하지 않은 사람(unmarried man)」의 意味를 끌어내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sup>42)</sup> 그런데 Searle이 지

38) Ferguson,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 *Essays on J. L. Austin*, p. 160.

39) Ferguson, 上揭書, p. 162.

40) Ferguson, 上揭書, p. 164.

41) Ferguson, 上揭書, p. 170.

42) Searle, "Austin on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 I 部에서

적한대로 意味가 效果(force)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意味와 效果가 同一한 것이 아니고 「말하는 行爲」와 「말하면서의 行爲」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말하는 行爲」는 무엇을 입으로 말하는 행위이고, 「말하면서의 行爲」는 그것을 말하면서 話者가 遂行하는 行爲이다. Searle은 「rhetic act」와 「말하면서의 行爲」가 다같이 間接 引用符號에 의해 說明되므로 이들은 같은 言語行爲라고 보았으나,<sup>43)</sup> 이는 引用符號의 用法과는 無關한 것이다..

(2) 表現可能性的의 原理에 관하여……

Searle은 이 原理에 따라 「효과 F를 갖는 발언을 하고 싶으면 언제나 문장의 意味가 F를 正確하게 表現하는 그런 문장을 발언 할 수 있다」<sup>44)</sup>고 했다. 原理상 話者의 S-R 意圖는 어떤 뜻에 적합하도록 「pheme」을 使用하려는 의도이니까 문장의 意味가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意圖를 나타내도록 문장을 발언할 수는 있다. 그러나 言語行爲論의 主任務가 Searle 自身の 말대로 人間의 意思疏通을 說明하는 일이라면,<sup>45)</sup> 「문장그대로의 意味」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애매한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말하면서의 行爲」를 遂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Forguson은 분명히 例示하지 않고 있으나 J. Leech가 說明하는 言語의 「親交的 機能(phatic function)」<sup>46)</sup>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말을 하므로써 어떤 意味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人間關係, 社會的 關係를 유지하기 위해 단지 말한다는 것 자체를 중요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Searle의 表現可能性的의 原理가 적용되지 않는다.

(3) 命題的 行爲에 관하여……

Ⅱ.2에서 說明한 命題的 行爲는 John이라는 사람을 言及하는 行爲(act of referring)와 John의 「떠나감」을 敘述하는 行爲(act of predicating)로 구분된다. Searle은 Austin의 「rhetic act」를 「말하면서의 行爲」와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命題的 內容을 表現하는 行爲와 그 內容이 어떤 方式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를 결정하는 機能表示 要素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Forguson은 命題를 表現하는 行爲와 意味있는 문장을 발언하는 「말하는 行爲(locutionary act)」는 同一한 것이 아니므로 두 行爲를 서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命題的 行爲에 관한 Forguson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結局 Searle의 命題的 行爲라는 것도 Austin이 말하는 「rhetic act」의 補助的 行爲에 불과하다. 「rhetic act」가 命名하는 行爲와 指示하는 行爲를 補助的 行爲로 갖고 있다면, 指示하는 行爲와 敘述하는 行爲로 구성 된 命題的 行爲 「rhetic act」에다 指示하는 補助的 行爲를 덧붙여 만든 概念에 불과하다.』<sup>47)</sup>

43) Searle, 上揭書, pp.146-147.

44) Searle, *Speech Acts*, p. 20.

45) Searle, 上揭書, p. 16.

46) Leech, *Semantics*, p. 49. 그는 言語의 기능을 i) 정보적 기능, ii) 표현적 기능, iii) 지시적, 지령적기능, iv) 미적기능, v) 친교적 기능으로 구분한다.

47) Forguson,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 (ed Berlin), pp.179-182.

## IV. 言語行爲論의 意味問題

## IV.1. 意味論의 세가지 類型

傳統的으로 意味에 관한 哲學的 論議는 주로 다음과 같은 問題들을 취급해 왔다.<sup>48)</sup>

- (A) 有意味性(meaningfulness)의 問題
- (B) 意味同一性(synonymy)의 問題
- (C) 意味一般(meaning in general)의 問題

Quine은 意味問題는 오직 有意味性的 問題와 意味 同一性的 問題라고 했고,<sup>49)</sup> 여기에서 Rosenberg와 Travis는 意味一般의 問題를 덧붙였다. 이 問題는 「意味란 무엇인가?」를 認識論的으로 그리고 存在論的으로 묻는 問題이다. 그리고 意味 同一性的의 問題는 어떤 言語的 表現  $E_1, E_2$ 가 있을 때, 그들이 同一한 意味를 갖게 되는 조건은 무엇이고 그들을 서로 바꾸어도 좋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有意味性的의 問題는 어떤 言語的 表現이 意味를 갖게 되는(having the meaning)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러한 問題들과 관련이 되는 意味論으로는 意味指示說(referential theory of meaning), 意味觀念說(ideational theory of meaning), 그리고 行動意味說(behaviorial theory of meaning)등이 있으나 論外로 하겠다.

그러나 Leech, Caton등과 같이 意味를 廣義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意味의 疏通的 價値를 중요시 한다.<sup>50)</sup> 전통적인 意味論은 言語自體의 意味를 문제삼았다면 소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意味論者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意味를 理解하는 가를 중시한다. 따라서 Humphries의 分類에 따라,<sup>51)</sup> 意味論의 세가지 類型을 有意味性的의 問題, 意味 同一性的의 問題, 그리고 意味理解의 問題라고 할 수 있겠다.

意味理解(understanding of meaning)의 問題는 意味를 아는 것(knowing the meaning)을 중시하므로 문장의 意味뿐만 아니라 그것이 使用되고 있는 상황과 文脈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아야 한다. 이러한 立場이 話用論(Pragmatics)이다. 프라그머틱스의 意味論에 의할 것 같으면, 문장의 意味는 그 文脈이 사용된 文脈 C와 관련되는 解釋(readings)이다. 文脈과 완전히 無關한 意味(context free meaning)는 마치 物理學者에게 완전한 眞空과 平面的의 概念처럼 일종의 理想(idealization)이다. 그러면 프라그머틱스(Pragmatics)의 意味公式를 記號化하여 다음과 같이 表記할 수 있겠다.

48) Rosenberg/Travis,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p. 391.

49) Quine, *Logical Point of View*, p. 11.

[The useful ways in which people ordinary talk or seem to talk about meanings boil down to two: the *having* of meanings, which is significance, and *sameness* of meaning, or synonymy

50) Leech, *Semantics*, p. 27.

51) Humphries, "Knowing the Meaning",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974).

$$\text{Prag} [D(S_i) \cdot I\{C(t)\}] = \{R_1, R_2 \dots R_n\}$$

여기서 Prag는 프라그머틱스의 意味公式을 表示하고,  $D(S_i)$ 는 문장 유형(sentence-type)에 관한 文法的 記述로서 종래의 認識的 意味가 되었고,  $I\{C(t)\}$ 는  $S_i$ 가 사용되어진 문맥이나 상황에 관한 정보이고,  $\{R_1 \dots R_n\}$ 는 일련의 意味論的 解釋(semantic interpretation)으로서  $D(S_i) \cdot I\{C(t)\}$ 의 產出(out put)이다.

그런데 Austin에 의해 論議되어 온 言語行爲論의 意味問題는 어떻게 意味를 理解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원래 意味를 아는 것(knowing the meaning)의 問題로 有意味性, 意味同一性 등의 問題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Austin의 「理解의 追求(the securing of uptake)」로서는, 말하는 사람이 말의 意味와 그 말이 어떻게 作用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을 아는 것만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言語行爲論의 意味問題는 意味理解의 次元에서 言語의 疏通的 價値를 중시하는 프라그마틱스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言語行爲論者들은 意味의 理解와 관련하여 「말하면서의 効果(illocutionary force)」를 중요시 한다.

#### IV.2. 말하면서의 効果와 意味問題

##### IV.2a. L. J. Cohen의 立場<sup>53)</sup>

Austin이 意味와 効果(force)를 구분한 것은 잘못이고, 이런 방식의 意味論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한 Cohen의 주장은 말하면서의 効果(illocutionary force)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과 「뜻과 지시(sense and reference)」의 使用이 Frege와 다르다는 것이다.

(1) Austin은 理解의 追求(securing uptake)를 말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자기가 警告로서 한 말의 意味와 그 말(locution)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理解시키지 못했다면 그는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Cohen은 이것이 오히려 「말을 통한 行爲(perlocutionary act)」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의 意味와 말한 결과로서의 效果(force)를 구별하는 것은 온당하나 意味를 「force」와 관련지어 말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했다. 예를 들면, 소값이 올랐다는 말에 농부는 기뻐하고 소장수는 기쁘지 않은 것은 「force」 때문이 아니다.

문법에 어떤 문장이 어떻게 사용되어 그 기능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語法, 抑揚, 혹은 발언의 전후 상황등을 말해주는 考慮事項들이 있으므로 구태여 意味와 效果(force)를 구별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 Cohen의 입장인 것 같다. 그렇다면 Cohen과 Austin의 견해 차이는 오직 用語表現上的 差異로서 言語的인 問題이다.

52) Katz, J.J. *Propositional Structure and Illocutionary Force* (1977), p. 16.

예를 들어 「I went to the bank」라는 영어문장의 意味는  $C=O$ 일때,  $R_1$  = 「나는 강둑에 갔다」,  $R_2$  = 「나는 은행에 갔다」가 되겠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I\{C(t)\}$ 에 의해  $R_1$  혹은  $R_2$ 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발언이 이 公式에 의해  $n=0$ 가 되면 無意味한 발언이며,  $n>1$ 이면 그 발언의 意味는 애매하다.

53) Cohen, L.J. "Do Illocutionary Forces Exist?"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hapter 7 (ed. by Rosenberg/Travis) pp. 580-598의 요약.

(2) Cohen은 Austin이 「뜻과 指示」라는 用語를 문장이나 발언 전체에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54)</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Frege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 두 문장의 뜻과 지시가 다르다는 것이다.

(A) 「나는 40살이다」

(B) 「나는 40살이라고 陳述한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遂行的 發言들을 검토해 보자.

(C) 「당신의 건초더미에 불이 났다」

(D) 「당신의 건초더미에 불이 났다고 나는 경고 한다」

C, D의 예문에서 Austin의 견해가 두 발언의 意味는 같고 「force」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Cohen은 위의 C, D의 문장에서 意味는 다르고 「force」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옹수한다. 그러나 Stampe가 지적하드시,<sup>55)</sup> Cohen은 말하면서 話者が 意味하는 것과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意味를 分明히 구분하지 않았다.

#### IV. 2b. Alston의 意味 同一性

Cohen과는 달리 Alston은 말하면서의 효과(illocutionary force)로써 意味 同一性の 기준을 삼으려고 한다.<sup>56)</sup>

「 $x$ 는  $y$ 를 意味한다」<sup>57)</sup>는 意味의 基本 公式에서 Alston은  $x, y$ 가 다른 말로 대치된다 해도 원래의 문장이 담당했던 역할(혹은 문장의 適合性이나 潛勢力)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치된  $x', y'$ 는  $x, y$ 와 同一한 意味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발언(A), 문장(B), 단어(C)등의 意味 同一性を 각각 4단계로 나누어 검토했으나 여기서 우리는 4단계만을 살펴보려고 한다.<sup>58)</sup>

IV. A.  $A$ 는  $O$ 의 경우 ' $x$ '로써 意味한 것은  $y$ 이다=定義 ' $y$ '는 ' $x$ '가  $O$ 의 경우에 갖는 用法을 통상 갖는다.

IV. B.  $A$ 가  $O$ 의 경우 문장  $S$ 로써 意味한 것은  $t$ 이다=定義  $O$ 의 경우  $A$ 가  $S$ 를 발언함으로써 수행된 말하면서의 行爲(illocutionary act)와 同一하다.

IV. C.  $A$ 가  $O$ 의 경우 단어 ' $u$ '로써  $v$ 를 意味했다=定義.  $A$ 가  $O$ 의 경우 ' $u$ '대신 ' $v$ '로 대치된 문장은, 대부분 ' $u$ '를 말했을 때 수행한 말하면서의 行爲를 수행하도록 사용된다.

Alston은 「意味는 그의 用法이다」라고 말한 Wittgenstein의 意味 使用法の 문제를 論議하면서 意味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과 用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54) 이점은 Searle과 견해가 전혀 다르다. Searle은 Ⅱ.1에서 Austin이 Frege의 용어를 단어나 구에만 적용하여 문장의 다른 意味要素를 간과했다고 했다.

55) Stampe, "Meaning and Truth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pp. 4-5.

56) Alston, *Philosophy of Language*, pp. 32-pp. 39.

"Meaning and Use," *The Theory of Meaning* (ed Parkison) pp. 141-165.

57) Garner, "Meaning" *Syntax and Semantics* (ed Cole/ Morgan) p. 320.

58) Alston, "Meaning and Use" (上掲書) p. 148, p. 156.

말하면서의 行爲를 分析하여 用法의 문제를 說明한다. 그러므로 그는 「意味를 안다는 것은 말하면서의 行爲의 素質(illocutionary act potential)을 아는 것」<sup>59)</sup>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意味의 同一性이 말하면서의 行爲의 素質에 無關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lston의 意味論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Harmman이 지적하는 것처럼,<sup>60)</sup> 이 理論은 약간의 循環論證의 誤謬를 범했다. 즉, 意味의 同一性을 素質(potential)의 同一性으로 說明하려 하나, 오히려 意味의 동일성에서 素質의 동일성이 說明된다. Holdcroft는 Alston의 理論을 「T.I.A alone」이라고 부른다.<sup>61)</sup>

### IV.3. 意圖와 意味問題

言語를 理解하고 意思疏通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한 사람의 意圖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意味問題가 意圖인가 아니면 規約인가의 問題가 되겠다. Strawson은 話者의 意圖를 파악해야만 意味를 理解하게 된다고 보고 意味에 관한 Grice의 見解를 수정하였다. 먼저 意味에 관한 Grice의 說明을 알아보자.

「A가 x로써 무엇을 意味했다」는 말은 (대략) 「A는 x를 발언하여 自己의 의도를 청중에게 認知시키므로써 어떤 결과를 산출할 것을 의도했다」는 말이다<sup>62)</sup>

이를 수정한 Strawson은 話者 S가 x를 말하므로써 말하면서의 行爲를 遂行하기 위한 必要充分條件으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sup>63)</sup>

- (i<sub>1</sub>) 청자 A에게 어떤 반응 r을 산출시킬 意圖를 갖고 있어야 한다.
- (i<sub>2</sub>) 청자 A에게 S자신의 의도 i<sub>1</sub>을 認知시키려는 의도도 갖고 있어야 한다.
- (i<sub>3</sub>) 화자 S의 i<sub>1</sub>대로 A가 반응 r을 나타내게 하는 作用이 최소한 화자 S의 i<sub>1</sub>에 대한 청자 A의 認識에 있다는 것을 의도해야 한다.
- (i<sub>4</sub>) 청자 A로 하여금 화자 S의 i<sub>2</sub> 까지도 알아차리도록 意圖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화자 S가 말을 하므로써 청자 A에게 어떤 命題 P를 믿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i<sub>1</sub>의 조건을 만족한 것이 된다. 이때 반응 r은 A가 P를 믿는 것이다. i<sub>1</sub>을 만족했으면 화자 S는 청자 A가 命題 P를 안믿는다 하더라도 A에게 P를 믿게하려 하는 S의 의도를 A가 알아차리도록 했다면 i<sub>2</sub>를 만족한 셈이다. 나아가서 A는 S가 P인 경우를 그렇게 믿지 않는 한 자기(A)에게 P를 믿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화자 S가 의도했

59) Alston, *Philosophy of Language*, p. 39.

60) Harmmar, "Three Levels of Meaning", *Semantics*, p. 68.

61) Holdcroft, "Meaning and Illocutionary Acts" (ed Parkinson) p. 164.

「T.I.A alone」은 theory of illocutionary act alone의 약칭으로서 Alston의 이론은 두 표현의 의미가 동일 함을 알고 있는 경우에 만 타당하다는 뜻이다. T.I.A. alone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理論이 意味와 Force도 同一하게되는 「완전한 illocutionary act의 記述」이어야 한다.

62) Grice, "Meaning"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p. 442.

63) Strawson, "Intention and Convention in Speech Acts" 第三部

다면  $i_3$ 가 만족된다. 왜냐하면 A가 S의  $i_1$ 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A로 하여금 P를 믿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sup>64)</sup>

이상의 설명에서  $i_1 \sim i_3$ 는 Grice의 說明方式이고  $i_4$ 만이 Strawson의 견해이다. Strawson은 Austin의 「理解의 追求」가 可能하게 되는 것은 최소한  $i_2$ 와  $i_4$ 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다. 참된 意思疏通을 위해 話者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일 Strawson의 「意圖」를 Ferguson과 같이 사용한다면 L-規約에 맞도록 하는 의도이니까 그것은 規約이나 規則과 無關한 것은 아니다.

#### IV.4. 意味와 規約의 問題

##### IV.4a. Searle의 Grice 說明에 대한 수정

Searle은 意味는 意圖 이상의 것, 즉 規約의 문제라고 하면서 意味에 관한 Grice의 說明의 결함을 지적했다.<sup>65)</sup> 즉, Grice는 言語를 통한 行爲의 결과와 말을 하면서의 行爲의 결과를 구분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結果(effect)들이 意味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둘째로 意味가 規約의 문제라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Grice의 分析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고 Searle은 생각한다. Grice의  $i_1$ 에서  $r$ 은 「perlocutionary effect」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PE를 產出할 것을 의도해야 하고,  $i_2$ 는 상대방에게  $i_1$ 을 인지시키므로써 PE를 產出할 것을 意圖해야 한다고 수정하면서 意味의 理解를 「말하면서의 行爲」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sup>66)</sup> 화자 S가 문장 T를 발언해서 무엇을 意味했다면 그는 T를 말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意圖했다.

- (A) 화자 S는 T의 발언 U로 하여금 청자 H에게서 T의 規則에 의거해서 說明되는 事態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意圖한다. (이 結果: IE)
- (B) 화자 S는 (A) ( $i_1$ )를 인지시키므로써 IE 말하면서의 효과를 產出할 것을 意圖한다. ( $i_2$ )
- (C) 화자 S는 (T의 要素)를 支配하는 (어떤) 規則들에 대한 청자 H의 知識에 의해  $i_1$ 이 인지될 것을 意圖한다. ( $i_3$ )

결국 Searle이 意味는 規約의 問題라고 말했을 때, 그는 意圖에 관한 것 까지도 規則으로 說明해야 한다는 것 같다. 따라서 意味의 理解에 관한 Searle의 立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67)</sup>

- (1) 文章의 理解는 意味를 아는 것이다.
- (2) 文章의 意味는 規則에 의해 決定되며, 이런 規則들은 文章發言의 條件과 그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說明한다.
- (3) 文章을 발언해서 무엇을 意味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A),(B),(C)의 意圖에 관

64) 그렇게 믿는 「충분한근거」라는 것은 II.1C의 含蓄에 관한 論理的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65) Searle, "What is a Speech Acts?" *The Philosophy of Language* p. 45.

66) Searle, *Speech Acts*, pp. 49-50.

67) Searle, 上揭書, p. 48.



한 問題이다.

(4) 그 文章(*T*)은 청자 *H*에게서 어떤 *IE*(말하면서의 효과)를 産出하려는 意圖를 성취 시키려는 慣習의 수단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意味論的 規則을 定立하느냐 하는 것에 言語行爲論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 IV. 4b. Searle의 意味論的 規則

Ⅲ.2에서 考察한대로 Searle은 文章을 命題의 內容을 表示하는 要素와 機能을 表示하는 要素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므로 Searle은 말하면서의 行爲를 分析해서 이 要素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며 意圖의 問題까지도 規約의 問題임을 說明할 수 있는 意味論的 規則들을 제공 하려 한다.

Searle은 約束하는 특수한 「말하면서의 行爲」를 分析하여, 이 行爲의 成功을 위한 條件들로부터 모든 言語行爲를 說明할 수 있는 規則들을 導出하려고 한다. 그는 「나는 ~할 것을 約束한다(I promise to do *x*)」는 발언의 「말하면서의 행위」를 成功시키는 9가지 條件을 提示한다.<sup>68)</sup> 그 條件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5개의 規則들이 導出된다.

[規則 1] 命題的 內容規則: *P*는 화자 *S*의 미래 行爲 *A*를 叙述하도록 發言될 수 있는 文章의 文脈속에서만 發言되어야 한다. (*P*: 命題的 內容을 포함하는 機能表示 要素)

[規則 2] 準備規則: *P*는 청자 *H*가 화자 *S*의 *A*行爲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에만 發言되어야 하고, 화자 *S*는 청자 *H*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믿어야 한다.

[規則 3] 準備規則: *P*는 화자 *S*가 正常的인 過程에서 *A*를 한다는 것이 화자 *S*와 청자 *H* 모두에게 分明하지 않은 경우에만 發言되어야 한다.

[規則 4] 眞摯規則: *P*는 화자 *S*가 *A*행위를 할것을 의도하는 경우에만 발언되어야 한다.

[規則 5] 本質規則: *P*의 발언은 *A*를 하여야 하는 義務의 着手로 간주된다.

이상의 規則들은 機能表示要素의 使用에 대한 규칙들인데, 마치 장기의 규칙들처럼 어떤 行爲 遂行을 위한 必要充分條件들이다.<sup>69)</sup> 그러므로 Searle은 이들은 言語行爲를 理解하는 意味論的 規則으로 간주한다.

『만일 이 分析이 約束의 경우를 넘어서 어떤 一般의인 意義를 갖는다면 그 意義는 여기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구분들이 다른 類型의 言語行爲들에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쉽게 보여지 리라고 생각된다.』<sup>70)</sup>

지금까지 意味를 말하는 哲學者들이 意味는 規則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한번도 意味論的 規

68) Searle, 上揭書, pp. 54-64, "What is a Speech Acts?"의 第五部에서 提示한 9개의 必要充分條件을 그는 一種의 「構成的 規則」으로 간주한다.

69) 장기두는 行爲에서, ① 준비조건: 象을 움직이려면 자기차례가 와야 한다. ② 本質條件: 象은 한 눈금 움직여서, 발 田字의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③ 眞摯條件: 각편은 이기려고 계임을 해야 한다. 등 (Searle, 上揭書, 六部에서)

70) J. Searle, "What is a Speech Acts?", *The Philosophy of Language*, pp. 52-53.

則의 체계를 提示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意味는 規則의 問題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Searle은 과감히 約束하는 특별한 行爲를 分析하여 모든 言語行爲에 적용할 수 있는 規則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의 시도는 높이 評價받을 만 하다. 그러나 그가 意味論的 規則을 導出하는 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約束하는 특수한 行爲에서 도출한 규칙들은 어디까지나 約束하는 行爲의 규칙이므로 여기서 歸納的 飛躍(inductive leap)이 成立되지 않는다.

둘째, 9가지 약속하는 行爲의 조건에서 5種의 규칙을 도출하는 방식에 이미 그의 「存在에서 當爲의 도출(is-ought derivation)」의 타당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先決問題 要求의 誤謬일 수도 있다.

## V. 結 論

(1) 20세기에 들어와 言語에로의 관심이 증대되었다<sup>71)</sup>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論理的인 것이었다. 즉 言語의 論理的 構造속에서 이에 對應하는 實在世界의 구조를 解明하는 것과 동사, 명사 등과 같은 論理的連結辭가 아닌 어휘들의 論理的 관계를 定式化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論理的 關心에 대한 도전이 日常言語學派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言語의 기능은 반드시 眞, 僞로 말해질 수 없는 次元에서도 說明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과 문장 使用의 기능을 구별하면서 문장을 發言하는 行爲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어떤 行爲를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Austin의 言語行爲論이었다. 그의 理論은 言語의 多樣한 現象을 理解해야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또한 人稱과 時制의 制約을 받는 특정한 言語 現象(發言)에만 관심을 모았다. 그는 人生, 事物, 眞理가 원래 複雜한 것인데 哲學者들이(實證主義者들을 지칭) 二值論理에 의해 너무 單純化(over-simplification)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sup>72)</sup> 그러나 그의 理論 또한 그런 反論을 면할 수 있겠는가?

(2) 言語行爲論의 意味 問題는 意思疏通과 관련해서 意味의 理解, 즉 意味를 아는 것(knowing the meaning)의 問題이다. 즉, 말해진 것의 意味와 그 말의 말하면서의 效果와 意圖까지도 알아야 한다면, 이는 프라그머틱스의 立場에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完全한 意味의 理解를 說明하는 意味公式을 다음과 같이 表記할 수 있다.

$$\textcircled{1} U \longrightarrow I'(P): \text{Searle}$$

$$\textcircled{2} U \longrightarrow P(x, \Lambda): \text{Kutschera}^{73)}$$

71) 哲學에서는 「言語에로의 전환(Linguistic turn)」이라고 하고 言語學에서는 「意味論的 전환(Semantic turn)」이라고 한다.

72) 이런 명제를 「철학자의 직업적 병폐」라고 부르며 「記述的 誤謬」라고도 했다. 각주 4)참조

73) 이런 分類는 Hare가 言語를 “phrastic”한 부분과 “neustic”한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나, Stevenson이 認識的 意味와 情意的 意味를 구분한 分類와 다를 바 없다. 각주 22)참조

$$\textcircled{3} \text{ Prag } D(S_i) \cdot I\{C(t)\} = \{R_1, R_2 \dots R_n\}$$

言語를 Hare나 Stevenson등과 유사한 方法으로 파악한다면 ②의 Kutschera의 설명이 더 적합하므로, ②와 ③식에서 意味理解를 증시하는 言語行爲論의 意味 公式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text{Prag } D\{P(x, A)\} \cdot I\{C(t)\} = \{R_1 \dots R_n\}$$

여기서  $D\{P(x, A)\}$ 는 발언의 敘述的인 文章類型(sentence-type)  $A$ 와 遂行的 기능을 표시하는 요소에 관한 문법적 기술이고,  $I\{C(t)\}$ 는 발언이 된 상황  $C$ 에 관한 정보이며,  $\{R_1 \dots R_n\}$ 은 프라그머틱스의 관점에서 産出되는 言語行爲論의 意味 解釋이다. 結局 言語行爲者들은 意味가 무엇인가를 說明하지 못하고 어떻게 意味를 아는가의 문제를 증시했다. 그리고 意味를 완전히 아는 것은 意思疏通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인된 문장의 文字 그대로의 (literal) 意味와 그말이 어떤 對象을 지시하는 지도 분명하게 이해된 言語指示的 意味도 알아야하고 나아가서 그말이 어떤 作用(혹은 機能)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分明하게 하는 「force」 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

(3) 本文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言語行爲論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면 變形生成理論과의 爭點으로서 意味를 아는 言語能力 (linguistic competence)의 문제가 대두된다. 生成論者들은 言語行爲論은 言語遂行 (linguistic performance)에 관한 理論인데, 言語行爲論者들이 이점을 무시한 채 意味에 관한 論議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한다.<sup>74)</sup> 따라서 言語行爲論이 과연 變形生成論과 調和되어 說明될 수 있는 문제인지 연구되어야 하겠다.

74) Katz (1977), *Propositional Structure and Illocutionary Force* pp.9-10.

## 參 考 文 獻(Reference)

- 이명현, “言語와 哲學”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7)
- Alston, *Philosophy of Languag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4)
- Alston. “Meaning and Use”, *The Theory of Meaning*, ed. Parkinson(London: Oxford, 1978), pp.141-165.
- Austin, J.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ed. J. O. Urmson (London: Oxford, 1962)
- Austin, J.L., *Philosophical Papers* (London: Oxford, 1970)
- Austin, J.L., “Performative-Constatative”,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Searle (London: Oxford, 1977), pp.13-22
- Austin, J.L. “Performative Utterance”, *Philosophical Papers*, pp.233-252.
- Berlin, S., *Essays on J. L. Austin*, Berlin外 6명 共著(London: Oxford Univ. Press, 1973)
- Black, M., (1949), *Language and Phiosoph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0)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5)
- Cohen, L.J., “Do Illocutionary Forces Exsist?”,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Rosenberg/Travi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pp.580-598
- Cole, P./Morgan, J.L.,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New York: Academic Press., 1975)
- Forguson, L.,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 *Essays on J. L. Austin*, pp.160-186.
- Garner, R.T., “Meaning”,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pp.305-362.
- Garmer, R.T., “Grice and Mackey on Meaning”, *Mind*, No. 331, 1974, pp.417-421.
- Grice, H.P., “Meaning”,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Rosenberg/Travis, pp.436-443.
- Hare, R.M., *The Language of Morals*, Chapter 2(London: Oxford Univ. Press, 1952)
- Harman, G., “Three Levels on Meaning”, *Semantics*, ed Steinberg, D., pp.66-76.
- Hill, T.E., *The Concept of Meaning*,(New York: Humanities Press, 1971).
- Holdcroft, D., “Performative and Statement”, *Mind*, No. 329, 1974, pp.1-19.
- Holdcroft, D., “Meaning and Illocutionary Acts”, *The Theory of Meaning*, ed.Parkinson, pp.166-181.
- Horspers, J. (1956),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Katz, J.J., *Semantic Theory* (New York: Happer & Row, 1972).
- Katz, J.J., *Propositional Structure and Illocutionary Force* (New York: Crowell, 1977).
- Katz, J.J., *Linguistic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1).
- Kenny, A., *Wittgenstein* (Penguin Books, 1973)
- Kutschera, F., *Philosophy of Language*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75).
- Leech, G., *Semantics* (Penguin Books, 1974)
- Lyons, J., *Semantics I* (London: Carubridge Univ. Press, 1977).
- Parkinson, G.H.R., *The Theory of Meaning* (London: Oxford Univ. Press, 1978).
- Quine, W.V.O.,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2nd ed.(New York: Happer & Row, 1963).
- Rosenberg, J.F./Travis, S.,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 Roty, R., *Linguistic Tur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0).
- Ryle, G., "Theory of Meaning" *Introductory Philosophy*, Tilliman pp.635-651.
- Sadock, T.M.,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Schiffer, S.R., *Meaning*(London: Oxford Univ. Press, 1974).
- Searle, J.R.,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2).
- Searle, J.R.,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Oxford Univ. Press, 1971).
- Searle, J.R., "What is a Speech Acts?",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Searle, pp. 39-54.
- Searle, J.R., "Austin on Locutionary and Illocutionary Acts", *Essays on J. L. Austin*, ed Berlin, pp.141-159.
- Stampe, D.W., "Meaning and Truth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ed. Cole/Morgan, pp.1-38.
- Strawson, P.F., "Intention and Convention in Speech Acts",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Searle, pp.23-39.
- Strawson, P.F., "Austin and 'Locutionary Meaning'", *Essays on J. L. Austin*, ed Berlin, pp.46-69.
- Steinberg, D.D./Jakobovits, L.A.,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6).
- Waismann, F. *The Principle of Linguistic Philosophy*,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1965).